

2008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의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회년

메시지 6

회년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을 누림—큰 기쁨의 좋은 소식
(1)

성경: 눅 1:78-79, 2:8-14, 25-32, 7:36-50, 10:25-37

- I. 우리는 회년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높은 곳에서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돈는 해로서 누릴 수 있다.
- A.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공의의 해이시다. 우리는 어둠을 쫓아버림으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불의를 없애버림으로 생명 안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추심을 누린다—말 4:2, 시 84:11.
 - B.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비추시고 속박에서 해방하시는 큰 빛이시다—사 9:1-5, 마 4:12-16, 요 1:4-5, 벰전 2:9, 골 1:12-13, 시 119:105, 107:10-22.
 - C. 그리스도의 내적인 비추심은 그분의 구원하심이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더 많은 목양하심—그분의 구원하심, 복원, 부흥, 신화—을 위해서 주님의 비추심이 매일 더 필요하다—고후 4:6-7, 말 4:2, 잠 4:18, 시 22-제목, 80:1, 3, 7, 15-19.
 - D. 돈는 해이신 주님의 내적인 비추심에 의해 우리는 그분을 회년의 몫과 자유로 누린다—골 1:12, 요 8:12, 32, 36, 행 26:18
 - E. 진리는 빛의 비춤이며,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갖는다면 우리는 지혜와 통찰력과 예지와 일들에 관해 내적인 지식을 갖는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출 33:14, 고후 2:10.
 - F.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의 분량은 우리가 받는 빛 비춤의 분량에 달려있다. 오직 빛의 비춤만이 생명을 산출할 수 있고, 오직 빛의 비춤만이 생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후 4:6, 창 1:1-3, 14, 시 36:9, 엡 5:13.
 - 1. 하나님께서 각종 유혹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거나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한 후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며 심지어 더욱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단지 인간적인 행위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행위는 본성이 변하게 되거나 끝나게 된다—고후 1:8-9, 12:7-9.
 - 2. 행위에는 어떤 빛 비춤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오직 빛의 비춤에 의해서만 산출된다. 우리가 생명 안에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많고 강한 빛이 필요하다—마 15:7-9, 13:43, 아 6:10, 단 12:3, 빌 2:15, 미 7:8, 참조 마 10:27.
 - G. 빛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성경 안에 쓰여진 말씀이 아닌 성령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밝히신다—시 119:105, 130, 요 6:63, 엡 5:26-27, 아 8:13-14, 사 66:2, 5.
 - H. 빛이 우리 속에서 비출 때 마다 그것은 우리가 내적인 의식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이 우리의 내적인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요 8:12, 32, 36, 롬 8:6, 엡 4:18-19, 5:8, 고후 2:13, 말 2:15-16.
 - I. 빛 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주실 때마다 그분의 얼굴 빛이 우리의 빛이며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시력이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다—롬 9:15, 행 9:3-4, 사 50:10-11, 민 6:25-26, 사 5:20, 참조 요 3:19, 욥 3, 살후 2:10-11, 잠 23:23, 요 5:44

1. 빛 비춤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비추심을 받기 원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갈망을 다하여 주님 한분 만 추구하는 데 단일하게 고정되게 해야 한다—시 139:23-24, 빌 2:12-16, 대하 12:14, 16:12, 34:1-3, 시 27:8, 73:25, 눅 11:33-36.
 2. 빛 비춤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야 하며 보류하는 것이나 주저함 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두어야 한다. 자신을 주님께 달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판결하고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들이다—고후 3:16, 잠 20:27, 마 7:1-5, 눅 6:36-37, 41-42.
 3. 빛 비춤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춰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들과 우리가 일들을 보는 방법들과 우리의 느낌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의견들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이 완전히 멈추어져 주님 앞에 올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단일하며 단순할 수 있다—눅 10:38-42, 요 11:21-28, 사 40:31, 마 5:3, 눅 18:15-17, 사 66:1-2.
 4. 빛 비춤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빛과 논쟁하지 말아야 하고 또는 밖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사역자들의 빛과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행 22:10, 아 5:4-6, 고후 10:3-5, 11:2-3, 민 16:1-7, 33-39, 17:1-8, 참조 출 33:11, 14.
 5. 빛 비춤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빛 속에서 살아야 한다—사 2:5, 요일 1:7, 히 9:14, 10:22, 마 5:3, 8, 14, 시 119:105, 계 1:20, 시 36:7-9.
- II. 우리는 회년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심을 위한 타락한 인류의 구주로 누릴 수 있다—눅 2:8-14, 4:18-19, 사 61:1-3, 미 5:2, 롬 5:10.**
- III. 우리는 회년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과 영광으로 누릴 수 있다—눅 2:25-32, 사 4:4-6, 42:6, 49:6, 43:7, 렘 2:11, 출 28:2, 고후 3:16-18, 엡 5:26-27.**
- IV. 우리는 회년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들의 빛을 용서하시고 갚아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극도로 사랑하게 하시는 돈 빌려 주는 사람으로 누릴 수 있다—눅 7:36-50**
- A. 사람-구주의 인간 미덕은 이 죄 많은 여인과 주님의 교통에 애정과 친절과 인내와 긍휼과 이해심으로 묘사되어 있다.
 - B. 그분의 신성한 속성은, 특별히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는 신성한 권위와 용서 받은 죄인에게 그분께서 평강을 주시는 신성한 속성 또한 묘사되어 있다—48-50 절.
 - C. 돈 빌려 주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진 죄들의 빛을 모두 용서하시어 우리가 그분의 쏟아붓는 사랑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신다—이것은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이다. 풍성한 생명을 분배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을 측량할 수 없는 영으로 우리 속에 분배하시어 우리가 그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이것은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이다—36-43 절, 12:15-21, 고전 15:45 하, 엡 3:8, 벧전 4:10, 빌 1:19-25.
 - D. 우리가 주님께 더 용서 받을 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한다—눅 7:42-43, 47
 1. 용서받은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졌을 뿐 아니라 주님께 대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 운행되었고 평강을 가져왔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져오며 사랑과 평강의 삶을 가져온다—갈 5:6, 눅 7:50.
 2.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증가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갖는 유죄 판결은 감소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유죄 판결한다면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3. 참 믿음은 우리 안으로 주입되시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분께 용서받고 평강의 길 위에서 그분을 극도로 사랑하도록 믿음이신 그리스도로 주입되는 생활이다—갈 2:20, 고후 5:14-15, 참조 롬 3:17, 사 66:12.
 - E. 우리가 주님께 더 용서 받을 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경외한다—시 130:4
 1.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으로(잠 1:7, 2:4-5, 9:10, 10:27, 14:2, 26-27, 15:16, 33 상, 22:4, 23:17, 31:3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고려하고 간주하는 것이다(3:5-10, 수 9:14, 사 11:2).

2.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의뢰할 데 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아 8:5-6, 고후 1:8-9, 빌 3:3.
 3.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잠 8:13, 14:16, 27, 16:6 하, 19:23).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의 고통으로 감동되어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한다(14:30-31; 17:5; 19:17; 21:13; 28:27).
- F.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잊으시는 결과를 낳는다—렘 31:34, 히 8:12, 요일 1:7, 9, 참조 시 103:1-5, 12, 110:3, 116:13.
- G. 주 예수님은 우리의 해방자이시다. 곧 우리가 신약 희년의 실재이신 그분을 누리도록 죄들을 용서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죄의 노예 노릇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의 노예 노릇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은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영원한 몫과 영광스러운 자유가 되게 했다—요 8:32, 36, 고후 3:17, 롬 8:2, 골 1:12.
- V. 우리는 희년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타락하고 율법으로 매맞은 죄인을 자비로 돌보고 그 영과 신성한 생명으로 그를 치료하고 교회생활 안에 그를 넣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누릴 수 있다—눅 10:25-37:**
- A. 율법사는 주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라고 물었고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반응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대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셨다. 그 율법사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29, 36-37 절:
1. 이것은 율법사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이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인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스스로 의롭다하는 율법사는 그를 사랑해줄 사랑하는 이웃인 주 예수님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도움을 입었다.
 2.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사마리아인 이웃이신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분께서 “그대도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그 율법사가 그의 이웃이신 주님을 답례로 사랑하기 위해 사랑이신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7, 29, 37 절.
 3. 사람-구주께서는 그분의 잃은 이들을 찾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 여행에서 (19:10) 유대교 강도들에게 상처받은 희생자가 비참하고 죽어가는 상태로 누워있는 곳에 내려 오셨고 그에게 부드러운 치료와 구원하는 보살핌을 주시어 그의 긴급한 필요를 완전히 채우셨다—10:33-35.
 - a. 주님은 죽어 가는 그의 상처를 싸매셨다—그를 치료함.
 - b. 그분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으셨다—그에게 성령과 신성한 생명을 주심—마 9:17, 삿 9:9, 13.
 - c. 그분은 그분 자신의 짐승(나귀) 위에 그를 두셨다—그를 겸손한 방식으로 겸손한 수단에 의해 옮기심—눅 9:9, 참조 고전 1:26-29.
 - d. 그분은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셨고—그를 교회 안으로 데려가심—그를 돌보셨다—교회를 통해 그를 보살피심.
 - e. 그분은 그를 위해 여관에 비용을 지불하셨다—그를 위해 교회를 축복하심
 - f. 그분은 여관 주인이 쓰는 것은 무엇이든 돌아올 때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 의해 구원 받은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다신 오실 때 갚아질 것임을 선포하심—마 24:45-51.
- B.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안에 계신 우리의 이웃이신 주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봉사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의 갈망과 선호를 갖고 계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아야 한다—눅 10:38-42, 행 22:8, 10, 빌 3:10 상.